

투데이 칼럼

혼연일체되어 안전한 사회 우리가 만들어요

춘 래불사춘(春來不以春), 절 기로는 분명 봄이와서 만개 한 꽃들을 바라보며 봄을 만끽하고 싶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괴로움속에서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

요즈음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람사이의 접촉을 최소화 하자며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단체 모임과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있으며,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학원이나 모든 체육 시설도 문을 닫고 지역축제나 문화 공연도 취소되었다.

평소 같으면 북적거릴 백화점이나 영화관등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한산하기만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분업을 제외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보내면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코로나19는 도대체 어떠한 질병인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유행성 질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



이 미 화

무진장 소방서 방호구조과

졌으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2020년 1월 7일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으며, 3월 11일에는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증상으로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잠복기는 3~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쉽게 개발되지 않아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예방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① 비누나 알코올 세정제로 손 자주 씻기 ② 마스크 착용 ③ 기침, 재채기 시 휴지나 팔로 입과 팔로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리기 ④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귀가 후에는 외출시의 복장을 벗어 세탁하기 등을 잘 지키면 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인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국민, 의료인, 정부가 각각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연히 대처한다면 코로나19는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는 충분히 이 질환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20일 최초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수준으로 울

리며 대응해오다 이후 지역 감염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의 방역시스템과 대응전략이 해외에선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고, 의료인들의 자발적 봉사와 땀방울은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는 요즘 가슴悶鬱한 사연으로 희망나눔을 줄을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 모아지는 격려와 응원은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생활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등 관련자료 알림과 발 빠른 진단검사 및 치료, 마스크 5부제 추진, 철저한 방역 등 온 국민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혼연일체(渾然一體)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플러스 에너지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거리는 더 띄우고, 마음은 더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 예방수칙 실천에 우리 함께 동참하여 안전한 사회 우리가 만들어요.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바이지만 방역 당국이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어떤 이들은 이런 요구를 언제까지 지속할테냐라며 속으로 불만이 있을 터이다.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확산 저지가 우선순위의 관심사이다. 신규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내일 모레가 총선이지만 그보다 코로나 사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방역 당국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은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협조 정신이 부족했다.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보건 당국의 말을 먹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스크 낀 사람들을 환자 취급을 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처음에는 코로나 발병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며 팬텀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누적환자 56만 명에 사

망자가 무려 2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발병 국가들 중에 모범 사례의 대상이다. 전북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도 아직 안심해선 안된다. 일반 시민들은 방역 당국과 연대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일부 불상식한 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자가 격리 무단 이탈이나 감성주점의 행정 명령 위반 행위는 당국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짓거리다. 그들에게는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다. 개인주의에 바탕한 제멋대로의 선택과 행동은 곤란하다.코로나 사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당국의 요구대로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 부득이 하게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끼어야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코로나 19를 기필코 극복해야겠다

지역 발전 현안 꾸준히 추진해야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발전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지난해 턱걸이를 하되만 주요 현안들을 쟁쟁하게 한다는 주문이다. 코로나 사태와 총선 때문에 경향이 없는 중이랄지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것처럼 지역 발전 현안도 꾸준히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나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 전북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전북의 현안이 다른 지자체의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여기 다시 요구하거나 본보가

지난날 여러 번 말한 게 있다.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라서 말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겠다. 현대중공업 측에 대한 짝사랑을 접어치우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2022년까지 미투지 말고 작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착했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발전 현안에 추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너무 앞장서는 것이 없다. 악착같이 덤벼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청렴의식, 나부터 깨끗하게!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청렴의 중요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청렴도가 높다.

국가를 경영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활화 되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하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결국은 사람이다.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청

렴한 사회의 시작은 나 먼저 실천하는 작은 청렴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 민원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청렴의 기본이자 바탕이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이라고 먼저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 규정대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정함 또한 청렴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나부터 깨끗하게'라는 청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강인한 뜻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호 원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손 씻어 코로나19 예방하세요”



주민 90% 이상이 이민자인 스톡홀름 외곽 텐스타에서 12일(현지시간) 자원봉사자들이 다국어 언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활동을 하면서 행인들에게 손 세정제를 나눠주고 있다. 스웨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만483명, 사망자는 899명으로 집계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